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9, 역사적인 이스라엘

© 2024 Gus Konk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세션 9, 역사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세우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연대기 기자는 그가 상상하는 왕국, 즉 그가 생각하는 왕국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독특한 장을 제공합니다. . 따라서 이 다음 장들은 연대기 작성자가 본질적으로 레위 사람들과 국가 관리들 및 모든 사건과 관련하여 다윗 왕국의 행정으로 우리를 이끄는 장들입니다. 따라서 여기 18장에 있는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영토를 획득할 수 있게 해준 몇 가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돌아갑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가 있으려면, 어떤 종류의 왕국이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인 유다 왕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이기 때문에 다윗의 리더십 아래서 우리는 그 영토를 다스리는 왕국이나 제국 같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다윗의 전쟁 중 일부를 이해하도록 이끈다.

그는 블레셋과 모압의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군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서쪽에서 이스라엘의 적이었지만, 매우 쇠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도시는 가사, 에그론, 아스돗이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가자 지구는 전통적인 블레셋 영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그 영토를 유다 지파까지 확장하려고 했고, 가능하다면 사울을 정복했을 때처럼 요단강까지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한 일은 그것을 뒤집고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물론 사해 한가운데로 흐르는 아르논 강 바로 북쪽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모압 땅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고원, 높은 산등성이였습니다.

그 영토는 사해 끝을 지나 헤스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해 동쪽 지역을 차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연대기 기자는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족보의 앞부분에서 에돔이 세일 산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곳은 사해 남쪽 끝부터 아카바 만까지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영토는 실제로 느슨한 민족 연맹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아카바 만에 있는 예시온게벨 항구로 접근하기 위해 다윗이 이 곳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아카바 만을 통해 남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북쪽의 페니키아인과 두로 와 시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예시온게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중요성입니다. 연대기 기자는 이것을 설명한 후에 다윗의 주요 인물들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이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브나야와 요압과 같이 그들의 군사 지도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사독과 같은 행정관, 제사장, 서기관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경비병들은 바로 브나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매우 잘 조직된 왕국, 매우 잘 조직된 국가, 국가를 갖고 있었고 이를 왕국으로 확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짧은 목록이 있습니다. 그 후 다윗의 전쟁은 동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암몬과 그리고 이어서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 기록이 있습니다. 사해 동쪽 지역을 생각하면 야박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박강은 사해와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그리고 야박 강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라바의 주요 도시가 있는 남쪽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따라서 이 전투는 사무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꽤 유명한 전투인데, 야박 강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이 다윗과 그의 제국에 어려움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 이제 사무엘서 10장과 11장 사이에는 암몬 사람들이 누구였으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매우 갑작스러운 전환이 있습니다.

나는 사해 두루마리의 사무엘에서 발견된 짧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 주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은 소위 하플로그래피(haplography)에 의해 생략되었습니다. 즉, 한 줄의 유사한 단어와 문자에서 아래 여러 줄의 유사한 단어와 문자로 건너뛴 서사입니다.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사무엘의 기록에는 이 구절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해 두루마리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엘서에는 이 구절들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성경 번역가들이 본문 비평을 하고 본문이 기록된 대로 돌아가기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뉴리빙역(New Living Trans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개정표준성경(Revised Standard Bible)입니다. 그러나 나는 암몬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읽어 줄 매우 중요한 몇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는 요단강 동쪽에 사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심히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이 바로 이곳 르우벤의 영토였고, 이곳은 갓의 영토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은 암몬 족속의 서쪽에 있었지만, 물론 이곳 랍바의 주요 성읍, 압복 강의 수원지에 살고 있던 암몬 족속은 영토를 확장하려고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고, 아무도 와서 그들을 구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언제나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구약에서 전쟁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오늘날에도 전쟁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전쟁에서 목격한 것의 영향이며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에 관해 이야기하든 이라크에 관해 이야기하든 그것은 우리와 함께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이제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무사들이 오른손으로 화살을 뒤로 잡아당겨 쏘는 것이므로 오른쪽 눈을 겨누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전쟁을 벌여 그들의 용사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뽑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은 칠천 명이나 되어 길르앗 야베스에 정착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은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숙곳 지역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로서 더 많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는 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했습니다. 이것이 연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사무엘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몬의 도발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연대기 기자가 말하듯이,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람은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다메섹을 지나 아람 소바 라는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신실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 동맹이 패배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 패배는 암몬 사람들의 수도인 라바의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 연대기 작성자는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다른 승리, 유다 서쪽 가자에서의 전쟁, 골리앗의 형제의 패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역대기에서는 매우 분명하지만 사무엘서에서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에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엘하 3장 [삼하 3:2]의 영웅적인 군인들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21L:19),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엘하난입니다.

이제, 연대기 작가는 이 본문을 다른 방식으로 읽었고, 그가 옳았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대기 작가는 패배를 읽었으며, 엘하난의 정복은 골리앗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대기 작가를 괴롭힌 것이 모순이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출처에 있는 방식대로 모순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가 모순을 찾는 방식이라면 말입니다.

그는 단지 그의 자료를 해석하여 엘하난이 물리친 사람이 골리앗의 형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곳에서 거인을 물리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국은 예루살렘 성읍과 그 주변 지역에서 동쪽으로 모압, 남쪽으로 에돔, 서쪽으로 블레셋, 그리고 동쪽과 사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요단 강 건너편 북쪽에서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이 패하였으니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둘 다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윗의 통치하에 있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으며 다윗의 왕국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토는 아카바 만에서 북쪽으로 레바논 산맥까지 뻗어 있습니다. 아람 조바 의 . 그러므로 이 지역은 이제 다윗의 통치를 받지 않는 지역이므로 다윗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거두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여기서 다윗이 제국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세션 9, 역사적 이스라엘입니다.